



# 교섭속보

## 7호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 / 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 / 노재옥

### 4차 산별현장교섭 보고

## 적극적 답변 하랬더니 핑계만 줄줄!

▲임금 => 지불능력 범위 내

▲직종별 적정인력 충원 => 정부 기준 마련되면

▲비정규직 임금 등 처우개선 => 합리적 차별



교섭위원을 소개하며 노사 교섭위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 송은옥 수석부지부장 (중간) 최규성 조합원 (오른쪽) 이문재 조합원

#### 4차 산별현장교섭, 임금 10.73%, 인력, 비정규직 문제해결 등 굵직한 요구안 심의 진행

4차 산별현장교섭은 지난 13일, 오후 3시 의과대학 본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새로운 교섭위원으로 사측에서는 손호성 의무기획처장을 대신해 추영수 선임간호부장이 참석했으며 노측에서는 참관인으로 구로 최규성 조합원과 안산 이문재 조합원이 자리했다.

4차 교섭은 ▲임금인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의 임금요구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근무인력 기준 ▲직종별 적정인력충원 등의 인력문제 등 가장 굵직한 요구안들의 심의가 진행됐다.

모든 안건을 완료한 시점은 오후 5시 30분으로 2시간 반 가량 진행됐으며 임금인상안 심의가 노사 공방으로 인해 약 40분 가량 다루며 비중 있게 다뤄졌다. 하지만 결론을 맺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 좋은결과로 잘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 사측 교섭위원들의 적극적인 타결의지 필요해

노사 대표위원 인사말에서 윤을식 의무부총장은 “좋은 분위기에서 잘 마무리해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

노재옥 지부장은 “요구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측 교섭위원들의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교섭에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야 실무교섭에서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노사가 요구안의 공감대를 형성해 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며 “보건의료노조 노정교섭도 진행 중이다. 복지부에서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아 걱정이 된다. 아시겠지만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선언한 상태에서 교섭에 임하고 있는데 산별 노정 교섭도 우리의 교섭과 무관하지 않다.” 고 말하며 교섭상황에 따른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언급했

다.

한편, “현재 고대안암병원 새봄지부 조합원들이 부당 징계 및 해고 철회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데 미화노동자들은 보건의료노조에 가입한 우리와 같은 조합원들이다. 그래서 병원이 원청으로써 이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 며 새봄지부의 상황을 전달했다.

### 임금, 돌고 돌아 제자리 답변

#### 수익 대부분이 지출되었으며 그중 47.8%가 인건비 포지션이다.

우리지부가 임금인상 요구안을 발제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들었던 답변이 또다시 돌아왔다. “인건비 비중이 너무 크다. 지불능력 범위 안에서 논의하자.” 는 것이다. 의료원측은 의료수익 1조 4천억 원 중 1조 3천 6백억 원 정도(98.8%)가 고정비로 지출되었다며 인건비 포지션이 47.8%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 손실보상금 지원이 끊겼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측 최재원 교섭위원은 ‘건물, 장비, 직원 모두가 투자대상이라고 말하며 인건비 지출을 통해 그만큼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병원이 못 버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라며 답변을 일축했다.

한편, 노측 위원들은 인건비 포지션이 높은 이유로 교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공방도 진행했다. 노측 이장구 교섭위원은 ‘타 병원들도 50%가 넘지만 전임교원 비율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우리병원도 그런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고 말했으며 이에 사측은 병원마다 항목 처리의 기준이 다르다며 교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노재옥 지부장은 “현재의 임금인상 교섭대상 기간은 2022년 수익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왜 코로나 손실보상금을 언급하는가. 그것은 내년 협상에 다룰 문제다.” 라고 말하며 윤을식 대표위원에게 “현재의 스템을 통해 2조의 기로에 서있다. 또한 타 병원들이 줄줄이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는 과정에서 고대도 고민이 많을 것이나 이는 노사가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며 대표위원님이 최종결정을 잘해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 비정규직 임금동일화

#### ‘교섭대상 아냐’, ‘합리적 차별’

▲최저임금 기준 ▲비정규직의 임금 동일화 심의안에 대해 의료원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임금 요구안을 논의할 경우 직접적인 지휘감독으로 인정될 수 있다.’ 며 논의를 피했다. 또한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임금 동일화 요구에 대해서는 동일 부서 내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책임 수준이 다르고 학력, 전문성 등의 여러 가지 조건에 차이가 있어 ‘합리적 차별’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도 많은 직원 들이 떠나고 있고 오라고 해도 손사레를 치고 있다. 안암 영양팀은 공석이 14자리나 있음에도 아무도 오려하지 않는 극한 부서로 지역에서는 정평이 나 있을 정도다. 사람에게 대한 투자가 인색하기 때문이다. 사람이든, 돈이든 큰 선물 하나는 풀어줘야 또 한 번 다짐하고 의료원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겠는가.

6월 20일, 마지막 교섭이 남아 있는 지금 고대의료원 발전의 기로에서 의료원의 결단만이 남아 있다. 통 큰 투자가 진행되려면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

### [2023년 고대의료원지부 4차 신별현장교섭 요구안 심의 결과]

<div>● 임금인상</div> <p>의료원은 물가 폭등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또한, 각 병원 증축으로 고생한 조합원들에 합당한 대우와 전년도 수익에 맞게 노동소득 분배가 필요하다</p>	<p>의료비용에서 인건비 비중이 47.8% 정도다. 현재 3년 평균 의료수익이 6.9%이지만 의료비용은 8.8%다. 인건비는 자연 소모와 인력증가를 포함해 9.6%로 높다보니 수입이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다.</p> <p>지불능력 범위안에서 잘 논의했으면 좋겠다.</p>
<div>●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div> <p>- 2023년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은 1만 1,930원으로 한다.</p>	<p>소속 조합원이 아닌 간접고용 근로자의 근로조건까지 교섭</p>

- 의료원은 파견·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갱신할 때 1만 1,930원을 2023년 최저임금으로 적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계약하며, 파견·용역업체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외주용역 업체에 대한 근로조건을 교섭대상으로 할 경우 사용자측에 직접적인 지휘감독으로 인정될수 있는 근거가 되는 부분이라 논의할 수 없다.

### ● 직접고용 비정규직 임금인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현재 정규직 초임호봉 대비 시간제 85%, 계약직 90%에서 100%로 동일 하게 지급한다.  
또한 현재 법적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나 비정규직도 220시간을 적용하고 있어 이는 체불임금이다.

부서 내에서의 업무 권한과 책임이 동일 하다고 볼 수 없다. 권한, 책임, 학력, 전문성의 수준에 있어 어느 정도의 임금격차는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부서 정부로 따졌을 때 정규직은 '정' , 비정규직은 '부' 의 지위로 업무를 수행한다.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 및 운영 개선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 의료비 및 간병비는 가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3년 간병비는 한 달 기준 400만 원~500만 원 가량이 소요된다.  
정부는 간병비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확대키로 하고 우리 병원도 기존 병상보다 확대 해 운영 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케어, 운영 실무, 진료 및 간호처치 등에서 환자들과의 마찰이 지속되고 있고 1:6이라는 간호사 대 환자 수는 허울뿐이다.

산별 의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노정합의가 제대로 이행 되지 않는 과정에서 요구안을 심의하고 입장을 드릴수는 없다.

### ● 직종별 적정인력 확충

2019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기준 마련의 법적 근거 마련.  
2021년 9.2 노정합의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6개 직종(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시행.  
의료법 36조 개정 관련 입법 청원도 진행 중에 있다.  
현장에서 인력이 없어 환자가 불편함을 초래하고 직원들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이 저해되어서는 안된다.

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간의 실태조사와 연구를 통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 결과가 나온 뒤 논의하면 될 것 같다.

### ● 환자안전을 위한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기준(ratios) 마련 ▲간호사 대 환자수 - 일반병동 1:5 / 중환자실 1:2

간호 1등급인 지금도 일반병동의 간호사 1명이 환자를 많을 때는 10명~14명을 본다라고 말했다. 중환자실도 기준보다 더 많은 환자를 보고 있다. 간호등급 차등제에서는 한 명의 환자에게 쏟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노조가 요구한 ▲병동의 병상 수 기준으로 근무조별 간호사 배치 및 확정 근무표 변경 금지 ▲5조 3교대 기준으로 최소 휴가 일수 보장 요구는 이미 시행 중인 항목이다.  
간호사 대 환자수 비율 기준 마련은 노정합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할 의향이 있다.

### ● 업무분장 명확화 및 불법의료 근절

PA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의사의 의료행위를 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의료나 다름없고 문제가 생기면 간호사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10/18일 <의료기관 내 의료인 업무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해 의사의 업무를 간호사 등 타 직종의 업무로 떠넘기는 것을 의료법 위반으로 명시하고,

업무를 가능한 한 위임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노정합의 내용에 맞춰 의료원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시범사업 결과가 나왔는데 업무 범위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보고서를 봤다. 보건복지부가 제도적으로 해야 할 역할과 pa 법제화가 만들어져서 인력으로 양성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이다.

이를 바로잡으라고 업무지침을 내린 바 있다.

#### ● 비정규직 문제 해결

정부는 2017년 7월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장은 정규직 전환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계약직은 고용불안에, 정규직은 비정규직의 트레이닝으로 업무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업무하중이 늘어나는 고통을 겪고 있다.

비정규직, 간접고용 부분의 요구안은 교섭대상이 아니다.

#### ● 노동개악 중단

▲주휴수당 폐지

▲52시간 상한제 준수(근로시간 40 + 시간외 근무 12)

▲근로시간 저축제 시행 금지

▲연장근로 산정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산정

▲직무 성과급제 도입 금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 산별현장교섭 요구안 시리즈 4. 임금편

# 1조 클럽 가입 5년째! 1조 4천억 벌었으면, 줄 때도 됐잖아!

의료원은 2018년 1조 5백억 원을 기점으로 1조 클럽에 가입한 지 5년이 넘어서고 있다. 그 당시 의료원은 ‘1조 클럽에 가입하면 조금 여유가 있을 것’ 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제4병원 건립, 규모 확장, 최첨단 의료시스템 및 장비 도입 등 핑계거리를 찾아 직원들의 대한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2020년	2021년	2022년
A. 의료수익	1,231,072,856,693	1,326,925,803,408	1,429,202,280,627
B. 의료비용	1,129,714,663,153	1,243,650,952,873	1,361,437,741,972
C. 의료이익(손실)	101,358,193,540	83,274,850,535	67,764,538,645
D. 의료외수익	57,571,349,094	119,667,236,375	122,730,685,451
E. 의료외비용	24,328,707,693	29,213,167,781	30,579,699,787
F. 경상이익(손실) (C+D)-E	134,600,834,941	173,728,919,129	159,915,524,309
F. 당기순이익	134,600,834,941	173,313,085,986	159,915,524,309
G.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156,000,000,000	200,000,000,000	193,400,000,000
H.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	69,683,019,961	74,598,958,379	83,732,433,765

	2020년	2021년	2022년
고유목적사업비 준비금 합	569,719,087,447	668,510,015,859	758,327,484,185
고유목적사업비 준비금	378,594,135,358	412,812,982,080	415,248,961,563
의료발전 준비금	191,124,952,089	255,697,033,779	343,078,522,622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지급받고 있어 이 수익 또한 상당하다. 의료수가가 2021년 1.6%, 2022년 1.4% 인상되어 이에 따른 진료 수입은 2021년 6.4%-9.6%, 2022년 5.6%-8.4% 증가했다. 2023년도 수가도 1.98% 인상이 확정되었다. 갖은 핑계를 대며 직원들에게 병원발전을 이야기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의료원이 결단해 직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만 발전하는 시대다.

고대의료원의 최근 3년간의 성적표가 너무 눈부시다. 2023년 의료수익이 약 1조 4천 3백억 원을 찍었다. 그 중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즉, 비영리 법인인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려고 비용처리해 놓은 금액 또한 758억 원으로 든든하다. 그 럽에도 불구하고 193억 원을 또 적립했다.

한편, 수가 인상도 수익에 한 몫하는 중이다. 병원사업장은